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님들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 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2016년 첫 번째 소식지에서 알려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비교한국학회 제 31회 국내 학술대회 개최

작년 12월 12일(토)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서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를 주제로 제 31회 국내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강우성(서울대) 선생님의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적의 폭력론과 영화」, 김성욱(서울아트시네마) 선생님의 「테러와 영화: 총탄의 시대와 정치적 상상력」, 함돈균(고려대) 선생님의 「한국문학에서의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진태원(고려대) 선생님의 「법의 폭력 또는 법의 역량」, 그리고 정예영(서울대) 선생님의 「법과 폭력: 발자크와 디킨즈」등 총 5편의 글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문학 · 영문학 · 불문학 · 영화 · 정치 철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폭력에의 인식을 단순히 상호 검토하고 비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부분들의 총합을 초과하는 전체적인 관점으로써 새롭게 폭력을 재인식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 임시 총회 보고

지난 12월 12일(토)에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임시 총회에서는 DOI 가입 신청, 학술지평가 정성평가 재심 신청 결과 등을 비롯한 제14대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년 하반기 주요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학회지 명칭 변경에 따른 학회 정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회지의 명칭이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학회지 배포 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학술지 23권 3호 발간 및 발송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3권 3호가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23권 2호와 마찬가지로 학회지의 구성은 ‘특집 논문’, ‘비교문학적 관점과 한국문학의 재인식’, ‘일반논문’, ‘리뷰’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집 논문’의 경우, ‘국제 질서의 재편과 문화연구 지평의 확장’에 대한 다섯 편의 논문들을 수록하여 문화적 지평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비교문학적 관점과 한국문학의 재인식’에서는 한국문학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한국 문학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호의 ‘비교한국학 리뷰’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2015년 10월에 발행한 박헌호 편저 『백년 동안의 진보』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호부터 각 논문에 논문고유식별번호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하여 발간하였습니다. 혹시 학술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학회 총무간사 양순모(010-7747-3179) · 최서윤(010-4745-9767)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4) 학술지 24권 1호 투고 안내

곧 2016년 4월 30일 발간 예정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4권 1호의 원고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투고 마감일은 2016년 2월 28일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는 학회 공식 이메일 [newiacks@empas.com](mailto:newiacks@empas.com)으로 보내주시고, 투고/심사/게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은 편집간사(박현익: 010-4502-6957, 윤선영 010-9288-2273)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조만간 발송할 투고 안내 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현재 회원 명부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회원분들 가운데 소속/주소/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총무간사 양순모(010-7747-3179) · 최서윤(010-4745-97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조력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심화된 통찰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장 이철의